

## 보도해명자료 (17.8.1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여의도 땅 최소 631배 필요한데 태양광·풍력서  
48.6GW 확보? (17.8.12. 서울경제)

---

### 1. 기사내용

- ☐ 원자력문화재단에 따르면, 1GW 발전설비를 구축하려면 태양광은 44km<sup>2</sup>의 부지가 필요하고 풍력은 202km<sup>2</sup>에 달함
- 태양광으로만 덮어도 1,830.4km<sup>2</sup>의 땅이 필요하고 여의도 면적(2.9km<sup>2</sup>)의 631배 되는 부지가 있어야 함

### 2. 등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☐ 국내 태양광 협회와 풍력 협회에 따르면, 태양광 1GW 발전설비 구축에는 약 13.2km<sup>2</sup>, 풍력은 약 4~5km<sup>2</sup>의 부지가 필요함
-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41.6GW를 태양광만으로 확충하려면 약 549km<sup>2</sup>, 여의도 면적(2.9km<sup>2</sup>)의 약 189배의 부지가 필요함
- ☐ 한편, 전문가관의 신재생에너지 입지 잠재량 분석\* 등을 감안할 때, 규제 개선 등을 통해 41.6GW 확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

\* 한국환경정책·평가연구원(14.12)에 따르면, 국내 태양광 입지 잠재량은 약 102GW, 풍력 입지 잠재량은 약 59GW로 추산됨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이진광 과장(044-203-5160)  
김도엽 서기관(044-203-5170)